

아프리카와 흑인의 이미지 : 18~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심재중(서울대학교)

서론

본론

1. 18세기까지의 전반적 상황
2. 계몽주의와 노예제 폐지(1848)
3. 19세기의 과학과 인종차별주의
4. 식민주의 논쟁과 '동화 정책'

결론

서론

‘한 사회 또는 문화가 다른 사회와 문화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비교문학 연구에서 흔히 다루어져 온 주제 중의 하나이다. 프랑스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학적 접근에 있어서도 1960년대 이후로 그런 주제는 비교적 활발하게 다루어져 왔다. 예컨대 ‘프랑스 문학 속의 흑인·아프리카의 이미지 연구’ 따위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¹⁾

1) 대표적으로 Roger Mercier, *L'Afrique noire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Les premières images* (Dakar, 1962), Léon Fanoudu-Siefer, *Le mythe du nègre et de l'Afrique noire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Klincksieck, 1968)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엄격한 의미의 비교문학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문학(작품)들을 비교·

그런데 그러한 관점의 연구는 지역·문화 간의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에 기여한다는 기본 목표를 가진 지역학 연구의 틀 안에서도 일정한 유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서구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갖가지 선입견과 편견들이 객관성의 허울을 쓰고 통용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탈식민주의 운동에서 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제기되었던 사실도 그러한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흑인 정체성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문제의식은 아프리카 연구의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다만 지역학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관심을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비교문학적 연구에서 문화·사회·경제·역사·철학적 담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도 18~19세기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프랑스인들이 아프리카와 흑인에 대해 어떤 이미지들을 지녀 왔는지를 검토해 보려는 데 있다. 특히 그러한 이미지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변화·굴절되어 왔는지, 지역 간 상호관계의 변화 속에서 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이미지가 부각되었는지 등이 이 논문의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²⁾

그리고 특별히 18~19세기를 대상 시기로 선택한 까닭은 그 시기가 노예무역과 노예제, 식민지 개척을 둘러싸고 프랑스-아프리카

연구하는 작업이지만, 이러한 저작들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비교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이 논문은 일차 문헌을 대상으로 다루지 못하고 주로 이차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진 개괄적·기초적 연구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지만 차후의 좀 더 심층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초석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관계의 기본 골격이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상대로 취한 여러 가지 정책과 행동에는 언제나 다양한 성격의 글, 그림, 연설, 사진 등을 매개로 하여 유포된 아프리카-흑인의 일정한 이미지가 포개어져 왔는데, 특별히 18~19세기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가 오늘날까지도 지배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듯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본 론

1. 18세기까지의 전반적 상황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하여 18~19세기의 서구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뒤로 대중들의 견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신화가 하나 있다. ‘역사를 갖지 못한 원시적 아프리카’라는 신화가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서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15세기 무렵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 흑인은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서구 역사에 등장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화의 뿌리에는 흑인의 인종적 열등성과 미개성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고, 그런 믿음이 흑인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데이비드 흄은 “나는 흑인종의 사람들 중에서는 문명화된 민족을 본 적이 없고, 행동이나 사유 능력이 탁월한 개인조차도 본 적이 없다”³⁾고 했고, 헤겔은 아프리카를 “의식적인 역사의 빛 저 너머, 밤의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유년의 고

3) Jean-Paul Gourévitch, *La France en Afrique*, Le pré aux Clercs, 2004, p. 32. 재 인용.

장”이라고 묘사하면서 “흑인들은 노예제를 전혀 비난받아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프리카인은 원시 상태의 인간이다.(...) 자연 상태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완전한 부정의의 상태”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노예제는 고대 그리스-로마에도 있었고, 15세기 이전의 아프리카에도 이미 존재했었다. 그리고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도 서구의 중세 기독교 시대부터 존재해 왔다. 예컨대 ‘삼의 저주론’이라든가 검은 피부를 죄악의 표지로 간주하는 기독교적 상상력이 그런 경우들이다. 그러나 인종적 열등성을 근거로 흑인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합리화하기 시작한 것은 아랍-이슬람권의 흑인 노예무역(9~19세기)과 대서양 노예무역(15~19세기) 시기에 와서이다. 14세기의 이집트 역사학자 이븐 칼둔은 “노예제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사람들은 흑인들이다. 그것은 동물 상태에 가까운 그들의 낮은 인간성 때문이다”⁵⁾라고 썼고, 당시의 일반적인 아랍-이슬람권 사람들도 흑인들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생식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종족, 게으르고 천박하며 성욕을 절제할 줄 모르는 종족, 흔히 서로를 잡아먹는 종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아랍-이슬람권에서는 아프리카의 이슬람화가 시작된 11~15세기경부터 개종을 통한 인종 개량의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15세기경부터 비슷한 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컨대 16세기의 라블레 같은 사람은 “식민지 주민들은 젖을 물리고, 활아주고, 즐겁게 해주어야 할 갓난애”와 같다는 전제 하에, 원주민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

4) G.W.F. Hegel, *La Raison dans l'histoire*, [En ligne], URL:<http://www.monde-diplomatique.fr/2007/11/Hegel/15275>. 2007.11.10 참조. 웹페이지가 출처인 참고문헌은 웹페이지 상에 텍스트의 출판 연도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연도 표기를 생략하였다.

5) Jean-Paul Gourévitch, *op. cit.*, p. 42. 재인용.

면에 기독교 선교를 이유로 노예무역에 찬성했던 16세기의 프랑스 신학자 장-벨롱 Jean-Bellon은 선교 외에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신의 논거로 사용하였다. 즉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 박탈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의미하며, 오히려 노예제는 흑인들에게 구원의 기회이자 식민지 농장의 좋은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그는 “그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은 노예무역의 중단”이라고 주장하였다.⁶⁾

사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까지 아프리카와의 관계는 노예무역을 매개로 한 관계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는 17세기 전반부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안틸 제도의 여러 섬들에 흑인 노예무역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물론 프랑스가 노예무역에 뛰어든 것은 16세기의 일이고, 17세기 중반이 되면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을 중심으로 노예무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프랑스 상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16~18세기 사이에 이루어진 프랑스인의 해외 식민 이주 규모는 60만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그 절반 이상이 종교적인 문제로 이주한 신교도들이었고, 대부분은 캐나다로 이주한 바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내에서 흑인과 흑인 노예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은 프랑스령 안틸 제도의 식민지 플랜테이션 경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부터이다.

1642년에 1만 명의 백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안틸 제도에 1680년 경에는 2만 명의 백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흑인 노예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서양 노예무역의 전체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프랑스령 안틸 제도로 이주한 흑인 노예들의 수는 대략 12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6) *Ibid.*, p. 53. 재인용.

주된 공급처는 지금의 앙골라, 베냉, 코트-디부아르, 가나, 세네갈 등이었다. 예컨대 1697년에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생-도맹그(지금의 아이티)의 경우, 1700년에 3대 7이었던 백인과 흑인의 비율이 18세기말에는 1대 13으로 벌어졌다. 생-도맹그는 ‘카리브의 흑진주’라는 별명이 말해 주듯이 카리브 지역의 가장 번성한 식민지였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의 생-도맹그는 프랑스 대외 무역의 1/3을 차지했고, 아메리카에서 프랑스가 얻는 수익의 70%를 산출했다. 한 해 평균 1,500척의 배가 설탕, 커피, 인디고, 가죽을 가득 싣고 생-도맹그를 떠나 프랑스로 향했다. 특히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력 수요 때문에 생-도맹그는 노예들의 집결지가 되었다. 1785년에서 1789년 사이에 15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수입하였고, 1789년 한 해에만도 55,000명을 수입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60개 조항에 걸쳐서 안틸 식민지의 흑인 노예와 관련된 갖가지 규정들을 담고 있는 「흑인 노예법(1685)」⁷⁾은 17세기 말의 프랑스가 흑인에 대해 지녔던 관념의 제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역사의 가장 추악한 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한 그 법령에는 식민지에 대한 프랑스 왕의 주권과 노예들에 대한 식민지 이주 백인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 예컨대 주인은 노예들에게 가톨릭 세례를 줄 의무와 의식주를 해결해 줄 의무가 있었고, 스무 살 이상의 주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에게는 자유인들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노예들이 지닌 것은 모두 주인 소유였기 때문에 노예들에게는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팔 권리가 없었다. 또한 노예들은 동산이자 공유 재산이었고, 필요할 경우에는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종 간 결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노예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노예가 되었다. 주인이

7) cf. http://fr.wikisource.org/wiki/Code_noir. 2007.11.10 참조.

나 주인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예는 사형에 처해졌다. 한 번 도망간 노예는 귀를 자르고 팔뚝에 백합 낙인을 찍었으며, 두 번 도망간 노예는 오금을 잘랐고, 세 번째 도망간 노예는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기초한 안틸 제도의 식민지 경영이 정착되어 가면서 동시에 흑인과 노예제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관점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겨났고, 노예무역의 이념적 토대 또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소수 흑인 노예들의 본토 이주와 17세기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식민지 현지 정서를 꼽을 수 있다.

2. 계몽주의와 노예제 폐지(1848)

1571년에 보르도 의회는 프랑스 영토 내에는 노예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을 해방시킨 바 있었다. 이후로 주인을 따라 프랑스로 이주한 흑인 노예들은 그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법규도 바뀌기 시작했다. 18세기에 약 5천 명 정도의 흑인 노예가 프랑스에 거주했다고 하니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 2천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이주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의무는 1716년에 폐지되고 말았다. 또한 1738년에는 흑인 노예의 체류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법규가 만들어졌고, 1777년에는 흑인과 유색인의 프랑스 입국을 금지하는 칙령까지 공포되었다. 동시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체류 허가증을 받아야 했고, 인종 간 결혼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흑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계몽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천부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가던 시대 분위기와 결합하여 노예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콩도르세, 디드로, 레날 신부 등을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 여론이 형성

되었고, 1788년에는 ‘흑인우호협회 La Société des amis des Noirs’까지 결성되었다. 그러나 노예무역을 “종교, 도덕, 자연법, 그리고 인간성의 모든 권리에 위배되는 거래”⁸⁾라고 비판한 몽테스키외나 “그렇게 추악한 제도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철학자의 깊은 경멸과 흑인의 비수를 받게 될 것”⁹⁾이라고 주장한 레날 신부, 언젠가는 흑인들이 ‘코드 블랑’을 만들어 복수할 것이라고 경고한 디드로까지도 근본적으로 흑인이 열등한 종족이라고 생각한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18세기에도 흑인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은 ‘개량은 가능하지만 인종적으로 열등하다’는 것이었다.

가령 18세기 계몽철학자들의 주요한 업적 중의 하나인 『백과사전』의 ‘노예제’ 항목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 출발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이름, 하나의 조건만을 지녔다”¹⁰⁾라는 선언적 명제로 시작된다. 그리고 노예제는 자연법과 사회법에 공히 위배되며 군주제든 민주제든 최상의 통치 형태가 그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이념에도 반한다는 주장, 또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흑인’이나 ‘흑인 노예무역’에 관한 기술에서는, 말 그대로 백과사전식의 객관적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예컨대 ‘노예’ 항목의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노예제의 역사와 「흑인 노예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요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흑인’ 항목은 흑인의 신체적 특징, 즉 넓적하고 큰 코와 두툼

8) *Ibid.*, p. 75. 재인용.

9) Henri Bangou, *Aliénation et désaliénation dans les sociétés post-esclavagistes*, L'Harmattan, 1997, p. 53. 재인용.

10) Diderot et d’Alembert,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http://diderot.alembert.free.fr>. 2007.11.15 참조.

한 입술, 곱슬곱슬한 머리 등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뒤이어 검은 피부색과 곱슬머리에 대한 당대의 과학적인 설명들이 소개된 다음, 흑인의 정신적 특징들이 기술된다. 흑인들은 “건장하지만 무지하고, 비겁하고, 게으르다고 알려져” 있다. 일부다처제나 할례 같은 “나쁜 풍습”을 가지고 있고,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이다. ‘흑인 노예무역’ 항목의 기술도 비슷하다. 서두에서는 노예 매매의 역사적 유래를 설명한 다음, 노예상인들에 의해 유포된 아프리카 부족들의 신체적·성격적 특징들을 소개한다. “밤바라족은 게으르고, 식탐이 있고, 도둑질 선수들”이라든가, “흑인들은 일반적으로 방탕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도둑질과 거짓말을 잘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계몽철학자들의 노예제 폐지론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는 구체제의 특권계급에 맞서 싸우는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는 맥락 안에서 흑인 노예제에 대한 그들의 반감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들의 그러한 관점은 당대의 박물학자였던 뷔퐁 같은 사람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뷔퐁은 현존하는 인종을 여섯으로 분류한 다음, 유럽인이 가장 뛰어나고 흑인이 가장 열등하다고 보았다. 다만 모든 인간이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흑인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¹¹⁾ 또한 쿠바 여행에서 흑인 노예들의 실상에 충격을 받고 “다른 인종을 노예로 부리자면 자신의 우월성과 다른 인종의 열등성이라는 허구가 필요하다”¹²⁾고 비판하면서 흑인 노예 해방을 주창한 빅토르 셸셰Victor Schoelcher조차도 흑인들의 두개골이 작은 이유를 ‘머리에 짐을 지고 나르는 관습과 지적 훈련의 결핍’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¹³⁾ 요컨대 흑인의 인종적 열등성

11) Jean-Paul Gourévitch, *op. cit.*, pp. 74~75.

12) Henri Bangou, *op. cit.*, p. 31. 재인용.

13) Jean-Paul Gourévitch, *op. cit.*, p. 121.

이라는 관념은 18세기에도 지배적이었고, 19세기까지도 유지되었다. 뒤에 보겠지만, 오히려 19세기에 가면 과학적인 담론에 뒷받침되어 그러한 관념이 한층 강화된 측면까지 있었다.

어쨌든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 국내 상황은 노예제 폐지 쪽으로 추가 기울어 갔다. 1790년에는 자유 흑인에 대한 투표권이 인정되었고, 결정적으로 폐지되는 것은 1848년의 일이긴 하지만 1790년의 국민의회에서 처음으로 노예제 폐지령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그러한 변화에 작용한 또 다른 요인으로 프랑스령 안틸 식민지의 전반적인 정서 변화를 꼽을 수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노예 반란이 현지 백인들에게 불러일으킨 두려움, 노예제의 잠재적 위험성과 경제적 한계에 대한 인식 등이 그런 요소들이다. 또한 해방 노예들의 증가와 몰라토 계층의 부상도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기존 관념에 동요를 가져왔다. 예컨대 몰라토는 흑인인가 백인인가. 생-도맹그 출신의 몰라토 오제의 비극에서도 잘 드러나듯이,¹⁴⁾ 자유를 넘어서서 평등을 요구하는 몰라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노예들의 탈주와 반란이 오히려 현지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를 극단적으로 강화시킨 측면도 있었고, 특히 19세기 초에 생-도맹그가 노예반란을 통해 독립(1804)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백인 학살은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다.¹⁵⁾ 또한 본국의 무역독점권에 대한 반감 등의 정치·경제적 이유 때문

14) 오제Ogé는 생-도맹그의 식민지 의회에서 흑인과 혼혈인을 구별해 줄 것을 요구한 인물이다. 자유 유색인에게 투표권과 대의권을 주라는 본국 의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현지 백인들에 맞서서 노예들의 무장봉기를 교사한 혐의로 체포되어, 스스로는 동시시키고 싶었던 백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cf. Henri Bangou, *op. cit.*, p. 49.

15)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의 정수』에 나오는 샤토브리앙의 반응을 들 수 있다.: “흑인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를 보고도 아직까지 흑인들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을까.” Jean-Paul Gourévitch, *op. cit.*, p. 110. 재인용.

에 노예제를 고수하려는 백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안틸에서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예제의 존속을 주장했던 라바Labbat 신부 같은 이의 논거, 즉 ‘가혹한 채찍질과 형벌의 불가피한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흑백의 비율은 10대 1이고, 흑인들은 틈만 나면 가장 끔찍한 범죄를 통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 한다’¹⁶⁾는 주장은 역으로 해석하면 노예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었다. 노예들의 행복과 종교적 구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노예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윤리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식민지의 번영을 위해 노예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¹⁷⁾ 심지어는 쉐세조차도 초기에는 식민지 플랜테이션의 경영을 이유로 즉각적인 폐지에 반대하였다. 현실적으로 노예제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식민지의 잠재적 경제 위기와 백인 소유주들의 피해 보상이었고, 실제로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서 안틸 제도의 플랜테이션은 큰 타격을 입었다. 프랑스 국내에서도 안틸 제도와 노예무역에 크게 의존해 왔던 낭트, 보르도 등지의 여론은 노예제 폐지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결국 1818년에 흑인 노예무역이 금지되었고 1845년에는 노예들에게 토지 소유권과 자유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공공 영역의 노예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848년, “임시정부는 노예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고, 인간의 자유 의지를 파괴하며, 권리와 의무의 본연의 원칙을 박탈하는 것으로, 자유·평등·우애라는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간주한다”¹⁸⁾라

16) Henri Bangou, *op. cit.*, p. 41.

17) *Ibid.*, p. 38.

18) cf. http://fr.wikisource.org/wiki/D%C3%A9cret_du_27_avril_1848_abolissant_l'esclavage. 2007. 11.17 참조.

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노예해방령이 공포되었다.

3. 19세기의 과학과 인종차별주의

아프리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유럽의 19세기는 ‘발견의 세기’라고 칭해진다. 그것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니는데, 첫째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과학적·학문적 탐색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이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정은 프랑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830년의 알제리 점령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19세기의 소위 ‘과학적 발견들’이 흑인과 아프리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념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엄격한 의미의 과학적 탐색의 결과물은 아니었지만, 19세기 중반의 대중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탐험가들의 보고서였다. 가령 여행가 르네 카이에 René Caillié는 16년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말리의 톰복투를 여행하고 돌아와 1830년에 여행기(『톰복투 여행기 Voyage à Tombouctou』)를 발표하였고, 그러한 공로로 프랑스 지리학회로부터 상금을 수여받았다. 그는 흑인들의 가무를 즐기는 낙천적인 성격, 게으르고 무지한 특성, 환대의 관습, 흑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등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개화된 종족이지만, 이슬람과 정령 숭배가 아프리카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지리학자 말트-브룅 Malte-Brun은 흑인들의 ‘영원한 유년 상태’를 아프리카의 기후, 유전, 풍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저작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프랑스 해군 장교 출신의 으젠 마쥬

Eugène Mage 도 『서부 수단 여행기 *Voyage dans le Soudan occidental*』(1868)에서 아프리카를 잠재적인 낙원으로 규정하면서도 게으름, 미신, 무질서, 이슬람을 아프리카인들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이슬람은 사람들을 광신자로 만들어 구걸을 정당화하고 여성을 비하하며 잔인성을 미덕으로 간주하게 만든다고 비판하였다.¹⁹⁾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1839년에 프랑스 민속지학회가 설립되었고, 1859년에는 인류학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흑인들의 신체적·해부학적 특징들과 인종적 특성 사이의 연관관계를 찾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컨대 흑인들의 두개골과 목둘레 크기를 측정하고 흑인 남자의 거대한 성기를 백인 여자들의 작은 성기와 비교하는 식의 연구들이 행해졌다. 그리하여 해부학자나 생리학자들은 흑인을 오랑-우탄과 같은 종으로 분류하거나 흑인이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²⁰⁾ 그런 경향의 연구들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어 고비노 Gobineau 의 『인종간 불평등론 *Essai sur l'inégalité des races humaines*』(1853~1855)과 우생학자 체임버레인 Chamberlain 의 『19세기의 기원 *Genèse du XIX^e siècle*』(1899)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유럽 인종차별주의의 기본 골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비교적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²¹⁾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와 흑인에 관한 한, 19세기의 과학은 인종적·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강화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세기 초반의 일이긴 하지만, ‘호텐토트 비너스 *Vénus hottentote*’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2002년에 프랑스 의회는 ‘식민 역사 시기에 프랑스가 저지른 과

19) Jean-Paul Gourévitch, *op. cit.*, pp. 119~121.

20) Henri Bangou, *op. cit.*, pp. 31~34.

21) 프랑스의 경우, 반아랍 인종차별주의는 특히 알제리 점령 이후에 카빌리아인과 아랍인을 구분하는 지배전략에 의해 강화되었다. 또한 모로코에서는 우호적인 베르베르인과 광신적인 아랍인이라는 차별 구도가 형성되었다.

오, 특히 반인륜 범죄인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사아아르체 바아르트만, 소위 '호텐토트 비너스'의 유해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반환하라는 법령을 통과시켰다.²²⁾ 원래 바아르트만은 1780년에 사우체라는 이름으로 코이산족 아버지와 부시맨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노예였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부모가 속해 있는 두 부족의 여인들에게서 이따금 발견되는 신체적 특징, 즉 엄청나게 튀어나온 엉덩이와 늘어지고 돌출한 성기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유럽에서는 '기형인과 이국적 야만인 전시회'가 유행이었다. 주인을 따라 런던으로 간 그녀도 시장판을 전전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내 '호텐토트 비너스'라는 별명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814년에 서커스단을 운영하는 프랑스인에게 팔려 파리로 온 그녀는 이듬해 창녀촌에서 사망하였다.

그녀에게 관심을 가진 첫 번째 과학자는 기형학 연구자인 생-틸레르 Saint-Hilaire 였다. 그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파리 식물원에서 그녀의 알몸을 관찰했고, 그녀의 해부학적 특징들이 원숭이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상징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비교해부학자 퀴비에의 관심이었다. 퀴비에는 그녀가 죽자마자 "인류 지식의 진보"를 구실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그녀의 사체를 해부하였고, 그 결과를 1817년의 의사 아카데미에서 보고하였다. 그리고 따로 보관되었던 그녀의 신체 모형과 유골, 두개골과 성기는 1937년부터 파리의 인간 박물관에 소장되었고, 1994년까지도 이따금 세상에 공개되곤 하였다.

퀴비에는 그 보고서에서 생-틸레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는 인간의 머리가 그녀의 머리보다 더 원숭이의 머리와 유사한 경우를

22) cf. *Rapport Assemblée nationale n° 3563 de Jean Le Garrec*, [on line] <http://www.assemblee-nationale.fr/11/rapports/r3563.asp>. 2007.11.20 참조.

본 적이 없다. (...) 어떠한 흑인종도 고대 이집트 문명을 세운 그 유명한 민족을 탄생시키지는 않았다.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그들의 법률과 과학의 원리들, 어쩌면 종교의 원리들까지도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 피부색이야 어떻든 간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같은 인종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크기의 두개골과 뇌를 가졌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고대 이집트인들도 작고 납작한 두개골이 영원한 열등성의 표지라는 냉정한 법칙의 예외가 아니었다.”²³⁾

이러한 결론이 우생학이나 생물학적 결정론 같은 과학의 이름으로, 당대의 대중들이 지녔던 타자에 대한 관념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고정관념들은 식민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의 이데올로기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4. 식민주의 논쟁과 ‘동화 정책’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지 개발은 19세기말의 제3공화국 시대에 본격화되지만,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골격과 그를 둘러싼 논쟁의 구도는 1830년의 알제리 점령과 함께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정치 일간지 『르콩스티튜쇼넬 *Le Constitutionnel*』은 7월 11자 신문에서 “알제 점령은 세계문명의 신기원을 여는 출발점”²⁴⁾이라고 썼다.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을 잃고 영국의 패권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던 프랑스인들 사이에,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운 식민 정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정서는 예컨대 ‘위대한 프랑스’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문명화의 사명을 통

23) *Ibid.*, 재인용.

24) Jean-Paul Gourévitch, *op. cit.*, p. 113. 재인용.

한 유로-아프리카의 구축'이라는 신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자는 장차 프랑스 식민주의의 핵심 원리가 될 '동화assimilation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알제리 현지의 가혹한 생활 조건에도 불구하고, 탈취·수용·불법 양도를 통한 토지 불하와 지가 상승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1833년에 8천 명에 불과하던 현지 이주민의 숫자는 1848년에는 10만을 상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알제리 식민 정책은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동화 정책은 '프랑스를 모델로 하여 식민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사실 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종'을 의미했고 현지 이주민들에게는 '본국과 동등한 권리의 획득'을 의미했다. 또한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리와 문화유산의 포기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식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문명화의 탈을 쓴 인종차별주의'의 위험을 지적하거나 계급투쟁 또는 휴머니즘의 관점을 논거로 사용하였고, 좀 더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의 상상력 속에는 아프리카 점령군의 위용과 그에 맞서 싸우는 흑인 영웅들의 이미지가 포개어지면서, '문명을 위해 싸우는 프랑스'와 '야만적·무정부적 원주민'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시기를 전후하여 발표된 문학 작품들도 문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메리메의 『타망고 Tamango』(1829)처럼 해방을 위해 싸우는 영웅의 모습으로 흑인을 묘사하였다. 위고가 16살에 쓴 첫 번째 소설 『뱁-자르갈 Bug-Jargal』(1818)도 생-도맹그의 노예 반란을 배경으로 흑인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소설이었고, 알렉상드르 뒤마의 『조르주 Georges』(1843)는 백인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흑인 노예 반란에 앞장서 싸우는 몰라토 남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의 통속 소설들 중에는 알제리를 배경으로 이슬람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에로티즘과 버무려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요컨대 아프리카 흑인들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경우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서구와 프랑스 문명의 가치’였던 것이다. 그 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시인·작가이자 진보적 사상가였던 위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847년에 알제리 식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서 위고는 “우리는 아프리카를 가져오기 위해 아프리카에 간 것이 아니라 유럽을 아프리카에 가져가기 위해서 갔다”²⁵⁾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흑인에 대한 위고의 관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1879년 5월 18일, 노예제 폐지 30주년을 기념하여 빅토르 셸세가 주관한 연회에서 그가 행한 연설을 통해서이다. “당신의 목소리가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뚫고 들어가, 아직도 유년 상태에 있는 그곳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셸세의 인사말에 뒤이어, 위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지중해의] 한 쪽에는 문명이, 다른 한 쪽에는 야만이 있다. (...)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없다. 일종의 드넓고 어두운 신화가 아프리카를 감싸고 있다. (...) 이 거칠고 무뎉뎉한 아프리카는 두 가지 모습 밖에 없다. 사람이 사는 곳은 야만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원시이다. (...) 19세기에 백인은 흑인을 인간으로 만들었다. 20세기에 유럽은 아프리카를 세계의 일부로 만들 것이다. (...) 자, 인민이여 그 땅을 차지하라. (...) 그대들의 노동자들을 소유주로 바꾸어라. 자, 가라! 도로를 뚫고 항구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라.”²⁶⁾ 노예제는 반문명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이었지만, 위고에게도 흑인은 야만 상태의 열등한 인간이었고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 지배를 통해 문명화되어야 할 원시의 땅이었던 것이다.

25) *Ibid.*, p. 116. 재인용.

26) Victor Hugo, “Le discours de Victor Hugo sur l’Afrique”, *Actes et Paroles vol. II*, [on line] <http://www.gutenberg.org>.

19세기 중반의 세네갈, 모로코에 뒤이어 19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프랑스가 식민화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우파 식민주의자들은 대개 식민 지배를 기독교 선교와 동일시하였고 좌파 식민주의자들은 문명화와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좌우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흑인은 열등한 인종이었다. 제3공화국의 정치가 쥘 페리 Jules Ferry는 ‘열등한 인종은 열등한 인종을 문명화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무력에 의한 것일지라도 야만 국가에 문명을 수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19세기 말의 경제학자 르루아-보리외 Leroy-Beaulieu도 ‘진화한 민족이 뒤쳐진 민족을 종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진화론적 관점 하에, 식민주의자들을 아프리카에 유럽 문명의 가치(이성, 과학, 기술)를 전파하는 개척자들과 비교하여 추켜세웠다.²⁷⁾

19세기 말엽의 식민주의 정파들은 단체와 그룹을 결성하여 신문과 잡지를 발행하였고, 학교 교과서에도 식민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당대의 아동 문학도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흑인의 이미지를 대중화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예컨대 아프리카와 흑인을 소재로 한 많은 이야기들은 ‘흑인의 자연 상태는 노예 상태라는 것, 흑인들에게는 식인 풍습이 있고 흑인은 네발짐승에 가까운 종족이라는 것, 흑인들은 영원토록 야만과 원시성의 포로라는 것’ 등의 판에 박힌 이미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4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의 분할을 결정한 베를린 회의(1884~1885)에서, 유럽의 열강들은 노예제·노예무역의 금지와 함께 ‘원주민들의 지적·정신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경주’를 자랑스럽게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27) Jean-Paul Gourévitch, *op. cit.*, pp. 141~143.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18~19세기에 걸쳐 프랑스인들이 흑인과 아프리카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지녀왔었는지를 살펴보았다.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주창한 천부적 인권과 자유는 흑인들을 노예제로부터 풀려나게 해주었지만, 노예제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흑인들은 흑인이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또한 휴머니즘과 과학주의가 큰 영향력을 행사한 19세기에, 흑인의 인종적 열등성이라는 관념은 과학적 객관성의 탈을 쓰고 한층 더 강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식민주의가 위세를 떨쳤던 19세기 말에 이르면, 문명화를 구실로 진보와 자유 그 자체가 아프리카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일정한 정도의 의의를 지니는 듯하다. 오늘날 서구의 아프리카 연구자들이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 비관론’과 ‘아프리카 낙관론’, 다시 말해서 ‘기아, 내전, 질병, 주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프리카’와 ‘자원, 정치적 민주화를 바탕으로 서서히 세계무대에 등장하는 아프리카’라는 이분법의 뿌리에는, 어쩌면 ‘야만’과 ‘문명’이라는 이분법이 여전히 파리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찰스 다윈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간주하기까지는 실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Bangou, Henri, *Aliénation et désaliénation dans les sociétés post-esclavagistes*, L'Harmattan, 1997.
- D'almeida-Topor, Hélène, *L'Afrique*, Le cavalier bleu, 2006.
- Diderot et d'Alembert, *Encyclopédie ou dictionnaire raisonné des sciences, des arts et des métiers*,
[on line] <http://diderot.alembert.free.fr>.
- Gérard, Albert, *Afrique plurielle*, Rodopi, 1996.
- Gourévitch, Jean-Paul, *La France en Afrique*, Le pré aux Clercs, 2004.
- Hegel, G.W.F., *La raison dans l'histoire*, [on line] <http://www.monde-diplomatique.fr/2007/11/Hegel/15275>.
- Hugo, Victor, “Le discours de Victor Hugo sur l’Afrique”, *Actes et Paroles vol. II*, [on line] <http://www.gutenberg.org>.
- Rapport Assemblée nationale n° 3563 de Jean Le Garrec, [on line] <http://www.assemblee-nationale.fr/11/rapports/r3563.asp>.

Les images du Noir et de l’Afrique en France: du 18^{ème} au 19^{ème} siècle

SIM Jae-Jung

Les images du Noir et de l’Afrique dans les discours littéraire, scientifique et politique en France ont toujours subi des mutations et des changements divers sous l’influence des événements et des circonstances historiques. Mais on serait d’accord pour dire que dans la période du 18^{ème} au 19^{ème} siècle où se sont soulevées beaucoup de discussions portant sur la traite négrière, l’esclavage et le colonialisme, s’est constitué le cadre général de la conception française moderne du Noir et de l’Afrique.

Les penseurs du siècle des Lumières ont joué un rôle important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 en 1848 en contribuant à la diffusion de l’idée que tout homme naît libre et égal. Pourtant, ils partageaient eux aussi une conception d’une hiérarchie des races selon laquelle le Noir se situe au bas d’une échelle dont les Blancs occupent le sommet. Cette conception a donné naissance à la conception scientifique des inégalités raciales qui se développe au 19^{ème} siècle. Ainsi, dans la seconde moitié du 19^{ème} siècle où l’on a vu triompher le colonialisme, même les idées humanistes comme la liberté et le progrès se sont mobilisés pour justifier l’expansionnisme français et l’assujettissement du Noir et de l’Afrique au

nom de la civilisation.

Le mythe d'une Afrique primitive sans histoire et celui d'un Noir relevant d'une race inférieure constitués par les philosophes et les scientifiques des 18^{ème} et 19^{ème} siècles ont toujours, semble-t-il, de l'influence sur l'imagination populaire de nos jours.

주제어 : 노예제, 노예무역, 인종적 열등성, 계몽사상, 휴머니즘,
식민주의, 우생학, 인종차별주의, 문명화

mots-clés : esclavage, traite, infériorité raciale, pensée des Lumières,
humanisme, colonialisme, eugénisme, racisme, civilisation

투고일 : 2007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31일